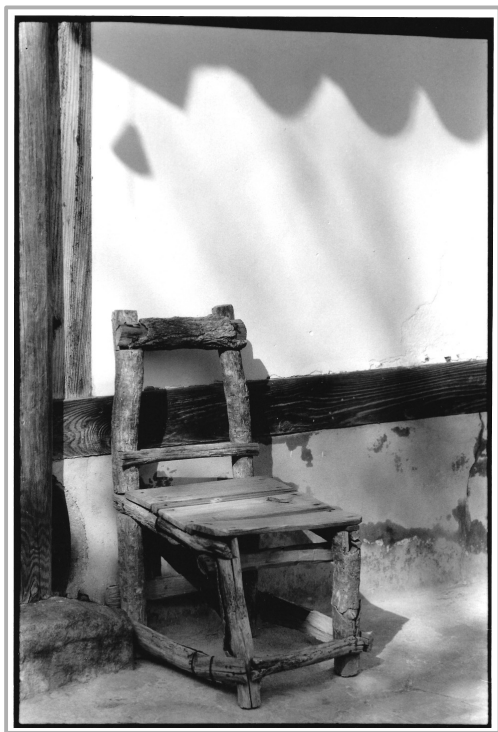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5



가고 오지 않는 부처님

아침에 동이 트자 오셨던 부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다시 가셨습니까?

부처님은 오고감이 없는 분이라는데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옛날에 어떤 조사스님은 “부처님 오신 곳이 어디인가” 자문하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전각에 시원한 기운이 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눈을 한 번 감아보세요.

깜깜하고, 이런 저런 소음이 귀에 들립니다. 지나갔던 기억을 다 놓아보세요. 앞으로의 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동전에 뒷면이 있듯이 이 소음들의 뒷면에 소음을 듣고 있는 고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니다.

눈을 한 번 떠보세요.

우리 눈에 여러 빗칼과 형상이 보입니다. 이 빗칼과 형상은 무상(無常)하여 다 지나가 버리지만 이 무상한 것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 안의 존재, 우리 안의 그 맑고 깨끗한 공간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참 부처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영원토록 모셔져 있습니다. 

길상사 주지 덕현 삼배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5

다시 읽는 산방환담 / 법정	4	뜻을 같이 하는 이와 함께 하리라
법정스님 추모사 / 덕현	7	사사곡(思師曲)
스님과 나 / 류연두	10	잊을 수 없는 그 곳, 불일암
숲을 따라서 / 우은숙	16	내연산 숲기행
사무국에서 / 김자경	18	법정스님 저서 절판과 관련하여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임	21	4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6	서울모임
	28	부산, 대구, 경남모임
여기는 길상사	30	5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32	직접 쓰신 글로 만나는 법정스님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 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5월 1일 발행 / 통권 18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박재철 / 편집장 김자경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뜻을 같이 하는 이와 함께 하리라

2009년 5월

부처님오신날 법문 중에서

法 頂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은 좋은 날입니다.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佛法)인지 한 번 돌이켜 봅시
다. 머리 깎고 먹물옷 입었다고 해
서 출가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참한
다고 해서 재가신도라고 할 수 있는
가? 어떤 것이 진정한 불자이고 부
처님의 가르침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후기에 결집된 대
승경전과 달리 불타 석가모니의 인
간적인 면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여시
어경(如是語經)》에 다음과 같은 법
문이 실려 있습니다. ‘여시어경’이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어떤 비구’라고 되어 있지
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라고 바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가사 자락을 붙
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르
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
고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는 이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추상적인 용어이지만, 검찰이나 판사들이 쓰는 법과는 달리 부처님이 평소에 가르쳐 주신 교훈, 즉 교법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교도일 수 있는가? 겉만 보아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 년에 한 차례씩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기회에 꼼꼼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진정한 불자일 수도 있고 사이비 불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설령 내 가사 자락을 붙들고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다 하더라도, 생

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집안 살림도 제쳐 놓은 채 절이나 교회에 자주 다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절이나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마음 씀이 훨씬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그대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이 절이든 교회가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신도뿐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연등 밝히고 불공 올리고 기도만 하고 헤어진다면 부처님 오신 날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진정한 불자인지 가짜 불자인지가 판명됩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게서 천 리 밖

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 때문에 걱정을 품지 않고 화를 내는 일도 없으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지 않고 도심(道心)이 견고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나 또한 그의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아까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늘 함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스승과 제자, 연인, 부부, 도반 등 한 집 한 도량에서 산다 할지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그 거리는 십만 팔천 리입니다. 뜻이 같아야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도량을 이룹니다.

불타 석가모니와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그 거리가 수만 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살아 있는 가르침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2,500년 전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대중을 상대로 한 설법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살아 있다면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가르침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가르침은 늘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곧 법을 본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나는 늘 함께 한다.” 





사사곡(思師曲)

덕 현(본모임 이사, 길상사 주지스님)

투명한 봄햇살이 누리에 가득하다. 새벽달은 그냥 예처럼 밝았다. 몸살이 나서야 조금 생긴 여유. 그러나 도량 거니는 발걸음 헛헛해라. 담벼락의 투박함 뒤에 숨어 있다 꽃봄의 문을 여는 영춘화(迎春花)의 놀라운 웃음. 문득 눈이 뜨인다. 아, 스님도 그랬었구나. 서늘이 죽지 않은 크리스탈처럼, 끌리지만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으되, 문득 가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온 영혼을 열어 함께 피던 꽃이었구나.

모퉁이 돌아서면, 스님처럼 사람 없는 곳에서 더 빛나는 이 매화의 고졸함이 있다. 스님은 섬진강가 마을 먹점골 매화가 제일 좋다고 그 청매 꽃그늘에서 차를 드시기도 하셨었지. 담장 밑 조금 낮은 곳에는 5월의 영광을 미리 준비하는 모란의 불그레한 새순들이 또 눈에 띈다. 가을 녀에 남쪽 암자에 내려와 손수

전지가위를 들고 잎 지고 난 모란 가지들을 다듬으시곤 했던 스님. 난 스님의 말씀을 따라 추위 타는 겨울 모란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큰절에서 톱밥을 얻어다가 이불처럼 밑동 주위에 둘러 덮어주었었다.

그렇지만 이제, 꽃이 다 뭐란 말인가. 봄날에 가시겠다고 약속을 끝내 당신은 지키셨지만, 그리움만으로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토록 밑물지듯 엄습해오는 봄이란 그저 가슴 아리게 여울져오는 처연함일 뿐.

이 세상의 눈부신 것들을 당신이 앓으셨듯이, 그렇지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덧없는 세상의 꽃들을, 더불어 이 쓰라리고 노여운 담벼락이나 썩은 것들을 다 껴안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때는 다 없었던 것처럼 참고, 어떤 때는 햇살 같은 다사로움으로 기다려 녹이고, 어떤 때는 달빛의 검광(劍光)으로 물밀을 뚫어

야 하는가?

자신이 없다.

일제치하, 한국동란, 군부독재, 급격한 산업화……, 모든 것이 굴절되는 어둠의 시대를 스님은 한 생애를 던져 투과하며 화살처럼 곧게 날아가셨고, 색깔 없는 수행자의 옷을 입고 가장 깊은 은자처럼 살면서도 세상을 그토록 내밀하게 열애하셨으니, 가장 높고 어려운 것을 가장 단순하고 쉽게 말하고, 말보다 행으로, 행보다 존재로 먼저 드러내 보이셨으니, 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외로움의 지존과 청정함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셨으니, 도대체 누가 또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것이 비록 부처님이 정하신 가장 멋진 주인공의 배역이라 해도 이제 누가 있어 그 험한 역을 맡으랴.

길상사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들의 가슴은 슬픔과 기쁨의 터치에 더 예민하게 떨도록 조율된 악기의 현처럼 마치 누군가의 연주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막상 그 연주자의 자리는 비어 있다. 아무도 감히 앉으려 하지 않는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제 그 언표

(言表)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 한 가운데 떨어져 세상 가장 가깝까지 퍼져가는 동심원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처음 수면 위에 떨어진 그 돌맹이는 이미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다. 악기의 조율은 얼마나 쉽게 어그러지고, 수면 위엔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는가. 꽃은 얼마나 빨리 지고 마는가. 낮은 길어졌지만, 하루는 더 빨리 저문다. 저녁 북소리도 공허하다. 몸살감기 덜 떨어진 목소리로 예불 마치고 법당을 나선다.

아, 그런데 …… 별이다. 어둠 속에서 승천한 꽃들이다. …… 어찌먼저 산 능선 위로 막 돋은 별이 스님 별이다. 눈빛이 닳았으니.

스님은 병원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잠겨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먼 땅에서 눈에 막혀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어느 영혼을 부르며 말했었다.

“사랑해.”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그 표현은 스님 입에서 나온 최초의 것이라고 누가 말했다. 나는 스님이 들고 있는 수화기의 저쪽에서 전해오는 그 영혼의 떨림을 감지했다. 어느 해 여름, 찾아온 몇 사람에게 스님은

좌선을 가르쳐 주셨었다. 그 설명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었다. 그러나
스님은 낮엔 사람들에게 꽃을 보여
주셨고 밤엔 평상을 마당 한 편에
꺼내놓고 별을 보게 하셨다. 그 중

그 여름이 저물어 가을이 되고,
가을 암자를 지키며 흠날리는 낙엽
을 치우다 지쳐가는 햇중에게 스님
은 편지를 보내며 그 끝에 이렇게
쓰셨었다.

‘스님은 영혼들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영혼들은 오래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엔 그 영혼이 끼어 있었다. 까맣고
높고 광막한 어둠에, 빛나는 빗금을
긋는 유성을 보고 탄성을 지르던 그
영혼이 물었었다.


“스님,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우주에 어디 끝이 있겠어? 저
무한한 우주에……”

그 대답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
다. 문학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아
였다. 그러나 스님은 영혼들에게 별
을 보여주셨고 영혼들은 오래 그 많
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의 가슴은 열리어,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잠든 꽃송이임을, 그리고 미
래의 어느 날 지고 나면 곧 하늘의
별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낙엽 치다꺼리에 고생이 많겠다.
있 지고 빈 가지 끝에서 새 봄의 싹
을 찾아보아라.”

봄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스님에
게 난 한 가지 봄꽃을 꺾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잎 돋지 않은 나
무 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별들, 그
속에서 스님의 사라진 기침소리와 호
흡을 본다.

별이 내려 꽃이 되고 떨어진 꽃들
은 하늘에 올라 별이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꽃과 별을
보는 그 눈빛이 되는 일이다. 때론,
꽃이 되고 별이 되는 일이다. 그리
고, ‘당신에게 보여지는 나’가 되는
일이다. 



잊을 수 없는 그 곳, 佛日庵

류 연 두

“내가 산중에서 사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틀에도 간섭이 없이 내 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리고 떠나기〉

塵勞迢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진로형탈사비상 긴파승두주일장)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기에 새끼줄 머리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흐드러지게 공부할지이다.

살다가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자신의 상황이 폐쇄적이고 미래 또한 불투명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

는 스무 살 후반 무렵에 이런 시기가 왔다. 천구백 팔십년도 후반, 그때 나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 하던 때였다. 내 직장 생활의 첫 발령지는 순천이었다. 그곳 순천은 나를 기꺼이 맞아 주었지만 사실 나는 거기에 부응할 힘이 부족했다. 새로운 출발이라 함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지만 연약한 사람에게는 불안함이다. 혼자서 맞는 그 해 순천에서의 겨울은 몹시도 추웠다. 퇴근하여 돌아온 하숙방에는 남동쪽을 향해 조그맣게 뚫린 창문을 통하여 얼어붙은 별빛 몇 개가 들어오는 겨울밤의 정경이 전부였다. 나는 그 방에서 순천에서의 첫 겨울을 보냈다.

그 시절 내게 위안이 있었다면 퇴근해서 돌아와 소설을 읽는 일이었다. 물론 소설을 읽는 것이 폐쇄적이고 암담한 상황을 호전시켜주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나에게는 조그만

위안이 되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이
에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소설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문득 소설에도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 그 소설 속의 힘이 추운 그 해
순천에서의 생활을 지탱해나갈 수 있
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휴일이면 짧은 겨
울 해가 떨어지기 이전에 다녀올 수
있는 조계산행이 위안을 가져다주었
다. 인근 승주군에 있는 조계산은
조계종의 승보사찰 송광사와 천태종
의 선암사,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묵
묵하게 지내온 쌍향수가 향내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천자암이 이
계곡 저 계곡에 자리하고 있는 산이
다. 나는 산길을 따라 그 중 송광사
를 다녀오고는 했다. 때때로 송광사
초입에서 계곡물을 건너는 징검다리
를 건너 왼편 산길을 오르기도 했다.
그 산길을 따라 오리 정도 걷다보면
푸른 대나무 숲 사이로 조그마한 암
자가 눈에 보인다. 그곳이 내가 조
계산행에서 위안을 받는 장소였다.

불일암이라 불리는 암자는 동남향
을 하고 있고, 앞은 조계산의 조망
이 한 눈으로 들어와 시원함을 감상
할 수 있다. 암자 앞 작은 텃밭 너

머로 정갈한 대나무 숲은 운치를 더
해서 암자에 들어 선 순간 녹색의
향연에 젖는 듯 착각이 든다. 암자
는 본체와 부엌이 딸린 요사체가 아
담하게 이웃해 있고, 본체 옆에는
잘 정리된 장작더미가 한겨울을 맞
이하고 있다. 우물로 가는 길 옆 잔
디에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라
는 팻말이 앙증스러우면서 한편으로
는 자못 위엄을 뽐내듯 조그만 키를
보여 주고 있고, 본체에는 주련이
있고, 거기에는 한글로 쓴 소박한
글씨가 있다. ‘청산을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렇게.

그 해 겨울의 짧은 해를 받고 서
있던 불일암을 그날 처음 다녀온 이
후로 나는 몇 번을 더 다녀왔을까.
아마도 예닐곱 번 정도는 다녀왔던
것 같다. 그 해 겨울 이후 이, 삼년
동안에 말이다.

나는 암자에 법정스님께서 머무르
며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일암에 세 번째 들렸을 때였을까,
나는 그때 스님을 처음 뵈었다. 스
님은 자신의 거처를 무례하게 찾은

젊은 방문객에게 다감했다. 무례한 젊은 방문객의 인사에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맞아주었다. 그날은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젊은 방문객도 암자를 내려왔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스님이 부엌에 손수 써서 붙여둔 글귀였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나는 스님의 자필로 적힌 이 글귀를 읽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그때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에 대한 경외와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소박한 암자, 여기의 주인이 하루의 해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던져주고 있는 까닭모를 파문이었다. 하숙집에 돌아온 나는 그날 이후로 불일암이 잊혀 지지 않았다.

봄이 왔다. 다시 찾은 불일암에서 스님을 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스님은 장부의 기상을 그대로 간직한 장년의 질푸른 소나무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뜨겁고, 냉철하며, 정확하여, 빈틈없는 품모 안에서 다사롭고, 여유로우며, 든든한 그늘이 느껴졌다. 나는 부끄럼 없이 스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섰다. 어쩌면 귀찮을지도 모를 낯선 젊은 녀석의 응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늘을 드리워 주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내 손에 스님은 이런 말씀을 쥐어 주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도록 하거나, 이쪽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갈등만이 있을 뿐이라네.” 천구백 팔십 년, 내 갓 이십 대를 살고, 슬프고, 아프게 한 광주민주화물결을 때때로 불면증처럼 떠올리곤 하던 그 때, 힘겹게 문을 열고 들어간 대학생들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마침내 교련집체교육거부를 하고, 그로 인한 영장과 낯선 군대 생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권력을 향유하는 자와 소외된 자, 정의를 먼저 품을 줄 아는 자와 자신의 안위를 먼저 꾸리는 자에 대한 그 이분화된 분별에 갇히려 우왕좌왕하던 청춘, 그래도 야심을 놓지 못하고 종내는 아쉬워 꼭 공부를 해서 사회속으로, 속으로의 항해하겠다는 치기 어린 욕망, 생각해 보면 암울하고 폐쇄적이며 불투명했던 그 많은 것들은, 그때 스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그것 속에 어떻게 용해되어 갔을까.

초겨울이었다. 스님께서 손수 깎

아 준 배는 시원하고 단맛이 깊이 배여있었다. 배가 맛있다는 내 말에 스님께서 왈, “암, 배로 배를 채워야지.” 암자 앞뜰 대나무의 청정함에 대나무가 눈이 부시게 푸르다는 내 말에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나무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그 시절 나는 정말이지, 정말이지 어두웠다. 스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하듯 놓쳐버렸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스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양귀가 콧막힌 젊은 녀석 때문에 안타까워했던지 종내 심기가 편치 않는 음성이었으니까. 나는 주섬주섬 내 그림자만을 쫓겨든 채 서둘러 인사드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벽창호가 따로 있으랴. 내 우둔함은 이렇듯 내가 잘 헤아리지도 못했으니.

초여름이었을까. 그날은 보슬보슬 이슬비가 내렸던 것 같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불일암을 찾았다. 그날은 그가 나를 동행해서 불일암에 가게 된 것이다. 그는 친구였다. 오직 공부를 통해서 사회로 향한 야심찬 항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혈기왕성한 그와 나였다. 친구는 사회속으로 항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보다 치열했던지 몸이 많이 안 좋았

고, 나는 그저 여전히 우둔했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즈음 친구는 이미 산문(山門)으로 들어서겠다는 결심을 굳혀가기 시작한 때였고, 나는 그것을 전혀 모른 상태였을 뿐이었다. 법정스님께서는 출타중이었다. 요사체에서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스님 한 분이, 해맑은 얼굴의 스님이 이슬비에 젖은 우리를 반겨주었다. 친구는 허물없이 그쪽 스님께 인사를 했다. 불일암의 공양주이신지, 아니면 상좌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맑은 미소에 해맑은 눈빛의 젊은 스님은 범명이 덕현이라 했다. 친구와 덕현스님과는 깊고 어려운 대화가 이어졌다. 방한쪽 서안(書案) 위에 펼쳐져 있는 경서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다. 나는 비로소 친구의 진면목을 보는 듯 했다. 친구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나는 머지않아 친구가 속세를 떠나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을 직감해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친구의 몸에서 향내가 났던 걸까. 불일암으로 올라오는 내내 친구의 몸에서는 향을 사르는 내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덕현스님과 친구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

을 즈음 스님 한 분이 올라 왔다. 스님은 범명이 덕문이라고 했다. 속가의 나이로 치면 네 사람 모두 동갑, 아니면 그저 한 살 차이리라 생각되었다. 돌아오는 길은 이슬비가 몇어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으나 어떤 말도 물어보지 않았다. 암자를 내려오는 길 내내 또다시 친구의 몸에서 느껴지는 향불의 아릿한 기운이 코를 두드리다가 이내 눈앞을 가로지르며 아른거린 듯 했다. 눈물이 번져 오르고 나는 조금 서러움이 느껴졌다. 친구는 머지않아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떠나리라.

入此門萊 莫存知解라 (입차문래 막존지해)

풀이 옷자라 오래도록 묵혀졌으나 예전부터 있던 바로 그 문을 오늘 내일 미루다 이제 들어 왔으니, “내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세간의 알음알이로 해석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라는 말을 남기듯이 홀연히 떠났다. 친구는 그렇게 세간을 떠났다. 그 때가 친구백팔십 년대 말 무렵이었던가.

몇 년이 지나 나는 한 시절 친구였던 그를 정보스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천십년 삼월 십일일 오후 두 시가 가까웠을 때 어떤 뉴스 속보를 접한 옆 동료가 말했다. 범정스님이 입적하셨데요. 나는 일손을 멈추고 인터넷의 속보를 읽어나갔다. 범정스님 열반. 상좌스님들 스님의 유지 따르기로. 우리시대의 무소유스님. 청빈한 삶을 실천한 범정 대종사.

길상사 경내의 길상초와 나무들에게 먼저 달려오곤 하는 빗갈 고운 계절들을 생각하던 나는, 이천 칠년 인가 팔년, 그 어느 날, 아내, 아이들과 함께 길상사 경내의 길상사 주지스님의 사진전을 관람하기 위해 갔다. 그곳에서 범정스님을 뵈었다. 스님의 천식기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가불자님들 사이에서는 간간히 스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해 깊어가는 계절 하나가 햇살을 받고, 조용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석조관음보살님상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경내의 길상초님들에게 속삭이듯 소식을 주고 있었던 것일까. 이제 이번 계절 하나도 깊어가는 중이다.

倒却門前刹竿 誰傳迦葉金襴

(도각문전찰간 수전가염금란)

雖然松檜滿山 幾人能見歲寒

(수연송회만산 기인능견세한)

문 앞의 찰간(당간지주)대를 쓰러뜨렸거늘 누가 가섭에게 금란가사 전했으리. 비록 소나무와 전나무가 산에 가득하다지만 그 몇 사람이 겨울에 추웠음을 알 것인가.


아상(我相)과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아난 존자는 가섭 존자가 이렇게 말한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아난아, 문 앞의 찰간을 꺾어버려라(倒却門前刹竿).” 이후 칠일동안 용맹정진을 한 후에야 비로소 가섭 존자의 참마음을 알았다. 이십 오년동안 부처님의 중요한 법문을 다 들으며 시봉했던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야말로 금란가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더군다나 부처님 사후의 경장(經藏)을 송출하는데도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교만심을, 아상을, 부셔야 할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마침내 그 찰간을 꺾어버림으로서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얻었던 것이다.

수행자의 도리란 무릇 이리해야

한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불교공부가 아니다. 불교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마음속의 찰간을 꺾어버려야 한다. 역대 선지식들이 모두 이리하다(能見歲寒) 하지 않던가.

다비장을 마치고 스님의 유언을 발표하는 덕현스님의 얼굴에서 나는 가섭 존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십년도 더 지난 그 시절, 내가 불임암에서 뵈었던 법정스님의 모습과 함께. 덕현스님은 당간지주를 꺾어버리고 들어오는 아난 존자를 바라보는 가섭 존자처럼 은사스님의 유언장을 표현하게 접었다. 나에게 그 모습은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스스로없이 아난 존자에게 쥐어주던 가섭 존자가 다시금 아난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난아, 문 앞의 찰간을 꺾어버렸구나. 마침내 꺾어버렸구나.

卽時現金 更無時節(즉시현금 갠무시절)이라고 할(喝)을 하시던 불임암시절의 법정스님.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고 이르셨던가. 허나 지금이 그때임을 여전히 우둔하여 놓치고 있는 나는 아, 부끄럽고 부끄럽다. 바로 지금! 지금 뿐이라는 것을 내 언제나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것인가. 



내연산 숲기행

우 은 숙

숲 기행 새내기 10학번 우은숙입니다. 작은언니와 함께한 내연산 숲기행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잊고 있던 소풍날의 설레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몇 십 년 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연산 폭포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돌과 바위에 부딪히고 계곡을 휘돌아 감으며 내는 진정한 물의 소리가! 내 안에 낀 탁한 먼지를 말끔히 씻어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은폭’은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두었습니다. 폭포 윗부분은 협곡에 가리어져 보이지 않으나 소(沼)로 떨어지는 마지막 물줄기가 하얗게 포말되어 바로 앞, 바위틈에 피어있는 연홍빛 산진달래와 더불어기가 막힌 어울림을 연출하고 있었으니깐요.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도 내연산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림(내연산 21폭 화첩)으로 남겨놓았지요. 그림속의 폭포도 사진속의 폭포도 아닌 항상 흘러내리는 폭포로 내 머릿속에 저장시켜 두었습니다.

이번 숲 기행을 통해서 ‘양지꽃’과 ‘세잎 양지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고, 특히 생강나무와 산수유를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마침 산수유나무가 보

[내연산 계곡의 쌍생폭포]





[내연산 보경사 숲길]


이기에 생강나무와 어떻게 다른지 배운 대로 알려 주었지요, 생각나무는 껍질이 매끈하고 산수유나무는 껍질이 까슬까슬 벗겨진 모습을 하고 있다고, 모두들 “아하!”하고 좋아 했답니다. 양치류(이끼) 식물인 구실살이와 그 곳에 군데군데 뿔러 있는 구멍이 ‘넓적다리 붉은쥐’가 들락거리는 통로라는 것도 이번 숲 기행에서 알게 된 귀한 공부였습니다.

5월의 자연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반겨주실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박희준 선생님! 다음 숲 기행에서도 많은 가르침 기대 하겠습니다.

〈내연산 보경사 숲길〉

“청하의 내연산(內延山)은 바위와 폭포의 경치가 기묘하고 아늑하여 자못 청량산보다 낫다.”

내연산은 포항시 송라면, 죽장면과 영덕군 남정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태백산에서 물운대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으로 이어진 산이다. 내연산은 원래 중남산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신라의 임금이 이곳에서 피란한 후 내연산으로 고쳐불렀다. 내연산 아래에는 천년고찰 보경사가 있고, 기암괴석과 폭포가 많아 소금강(小金剛)이라 부른다. 이궁익은 연려실기술의 지리전고에서 내연산을 소개하는 글로 “청하의 내연산은 바위와 폭포의 좋은 경치가 있다. 산에 대, 중, 소 세 개의 돌솔이 바위에 벌려 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 개의 돌이라고 일컫는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약간 움직이는데 두 손으로 흔들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다. 

- 자료제공 : 박희준 -



법정 스님 저서 절판과 관련하여

김 자 경(사무국장)

“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풀어 놓 말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본 법인을 이끌어 주시던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스님께서는 40여 권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것을 본 법인으로 상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정식으로 본 법인으로 전달된 것은 지난 3월 17일(수)의 일입니다.

2010년 3월 11일 오후 3시경 스님의 원적 소식과 함께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모든 유품과 40여 권 저서에 대한 저작권이 본 법인으로 상속됨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초재일 때 유언장 공개로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본 법인에서는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발생한 ‘이사장 궐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사회를 지난 3월 17일 긴급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유지를 유언 집행인인 ‘김남선 거사’로부터 공식 전달 받

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과 2008년 2월 상반기 정기 이사회 이후 병환이 깊어지면서 이사장 법정 스님께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셨던 덕현 스님(길상사 주지, 이사)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공식인 이사 선임은 4월 28일(49재일) 이후 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사와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3월 17일 이후 4월 26일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이사회(3월 20일, 24일, 31일, 4월 8일)가 잇따라 열렸고 스님의 저서 절판 유지를 받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를 구성, 스님의 저서를 출간 중인 각 출판사와의 원만한 저서 절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윤청광 이사, 김형균 이사, 선병주 감사 그리고 김자경 사무국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출판사를 직접 방문,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였는가 하면 7차례 이상 소모임을 갖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30일자로 각 출판사들과 스님의 저서 절판을 위한 합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첫째, 스님의 49재일인 4월 28일까지만 (사)맑고 향기롭게는 새로운 인지를 발급한다.

둘째, 모든 출판사는 2010년 7월 30일까지만 해당 도서를 서점에 보급 판매를 하고 8월 1일부터는 일체 도서의 수주 및 출고 행위를 할 수 없다.

셋째, 모든 서점(인터넷 서점 포함)에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해당 도서의 판매 중지 및 반품을 요구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일체의 유통 판매를 중지한다.


넷째, (사)맑고 향기롭게는 각각의 계약에 의거, 각 출판사가 보유한 저서의 잔존한 계약기간과 향후의 절판 기간을 합한 기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출판이나 인터넷에 의한 저서의 보급을 할 수 없다.

정상적인 출판 계약을 맺어 출판권을 가지는 출판사들로써는 사실 이같은 절판 합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의 유지를 받들 것임을 천명하였는 가하면 각 출판사마다 입장이 다 다름에도, 난상토론을 통해 절판에 합의해 준 여러 출판사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이없고 기막힌 일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와중에 스님의 글을 기술적으로 엮어내고 묶어내 마치 스님과 유관한 책인양 잘 포장해낸 책들이 하나 둘씩 발간되고 있고 이것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글은 <법문>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법당에서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에게만 설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법당 삼아 솔향 가득한 법문으로 메우시어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대중들에게, 회원과 신도들에게 일러주신 무소유와 맑은 가난,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맑고 향기롭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글을 어찌 이렇게 탐욕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랄 뿐입니다.

하여 본 법인 이사회에서는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를 계속 가동, 무단으로 스님의 이름을 내걸고 급조되어 출간되고 있는 책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49재 이후 이사회를 다시 열어 새 이사 선임(부득이한 사정으로 변택주 이사가 사임하여 현재 공석은 이사 2인임)과 이사장 선출로 내적인 재정비를 꾀하는 한편 스님의 저서 절판에 따라 한시적으로 본 법인으로 귀속될 인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대내외에 밝힘은 물론 맑고 향기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써달라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사용처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묘희원(4일, 매월 첫째 일요일)**(소감 : 한인섭 모듬장)**

노란 개나리 꽃 향내가 가득한 화사한 봄날이다. 집결장소인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앞으로 가자 이미 많은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먼저 8명이 탑승한 카니발이 묘희원으로 출발하고, 바로 이어 11인승 봉고에 13명이 끼여 탄채 출발하자 차가 묵직하게 움직였다. 다음달에는 차량 한대를 더 준비를 해야 하나. 묘희원에 도착하자 나무자르기와 실내청소작업이 주어졌다. 주방과 실내청소 봉사자를 제외한 나를 포함한 대부분 회원들이 톱과 낫을 들고 산으로 갔다. 묘희원에서 신축예정인 비구니 스님들 숙소 부지에 임야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나무자르기를 한 뒤, 비교적 굵은 나무는 화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낫으로 가지치기를 한 후, 나르는 작업이었다. 아카시아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면서도 모두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작업을 했다. 총무님이 사온 막걸리가 꿀맛이었다. 손발이 척척맞다 보니 작업능률이 좋았다. 모두들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잔디밭에 모였다. 진인선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만능엔터테인먼트 김창수님이 치

매 예방교육을 하여 따라했는데, 모두들 생각과 손 동작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였다. 치매 예방동작이 아니라 치매가 걸린 사람들의 동작같은데... 새로 참석하신 김지향님을 비롯하여 회원님들 각자 소개를 한 뒤, 홍순선님이 묘희원 봉사팀이 너무 열심히 활동하여 여수향일암, 홍국사, 영취산, 시간이 되면 송광사까지 돌러오는 1박 2일 성지순례에 차량과 숙소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여 8명이 신청하였다. 보살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다. 이런 분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진인선원(11일, 매월 둘째 일요일)**(소감 : 이금재 모듬장)**

경복궁 건춘문이 달라졌습니다. 물오른 나뭇가지도 파랗게 물이 올랐습니다. 또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권력의 상징 4월 함성을 경무대를 지키기 위하여 서있던 그것과 유사한 그 무엇이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여 인원 확인하여 진인선원으로 가는 길에 개성의 송악산은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전의 할 일을 지시받아 자기의 역할을 다하니 한 마음을 짝을

때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 고마운 마음 담아 사물연습하고 오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박수치고 손잡고 마음을 섞이니 또다른 이야기 되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아악새 슬피우니 가을 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담아 깊은 인연 속에 숨었습니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 **이찬희** : 대상자 중 한 분이 3월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다. (정릉2동 김○○) 환절기라서 어르신들이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셨다. 길상사 보현회 활동하시던 분(이○○)이 뇌출혈로 2번 수술을 하셨는데, 집에만 계셔서 전화말벗을 청해오셔서 새롭게 하고 있다.

- **엄경숙** : 개인적으로 바빠서 전화를 잘 못했다. (여행) 안부전화 드렸는데, 어디 갔다왔냐고 물어서 온천 다녀왔다고 하니, 온천 가고싶다는 분이 많았다. 3주 만에 전화를 했더니, 많이 반겨주고 걱정해주셨다.

- **이현주** : 특별한건 없다. 다들 건강

이 안 좋다는 말을 하신다. 김○○(장위1동) 어르신께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혜택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입주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 **서은영** : 김○○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초음파검사를 해보란다. 어르신이 감기에 많이 걸린 것 같았다. 최근에 반찬이 더 맛있어졌다고 한다. 어르신에게 해줄 재미난 이야기꺼리를 찾아야 되는데 안 부만 묻고 끊으려니 심심한 것 같다.

- **안정희** : 지금은 전화를 하지않는 어르신덕에 우연이라는 학생(중3)이 있는데, 우리아들 영어과외선생님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다. 장○○ 어르신이 최근에 아들과 딸이 수술을 했는데, 그후로 어르신도 많이 무리를 하셨는지, 치매가 심해져 낮에는 봉사자가 와서 간호를 하지만, 밤에는 속옷바람에 밖에 나온다고 한다. 언니할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요양시설에 가야할 것 같다.

(복지사 상담요청)

- **오은주** : 개인적으로 바빠서 제대로 전화를 하지 못했다. 3월초에 전화하고 못했다. 어르신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전화가 먼저 오기도 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담당 : 권미자 모듬장)

**1일 노현희** - 유난히 번덕스러웠던 날 씨속에서도 얼굴 내민 어린 꽃망울들은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머지않아 지난 겨울의 눈꽃 만큼이나 소담스럽게 하얀목련과 벚꽃들이 완전한 봄을 이루겠지요. 교리공부를 하는동안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맑고 향기롭게 문을 두드렸답니다. 낯설고 멋쩍었지만 환하게 인사나누며 소박한 간식들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으며 배식을 준비하는 봉사팀원들간의 애정을 느낄수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어색하고 답답한 모자, 장갑, 마스크를 하고 3시간 동안 서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며 배식, 설거지, 식탁정리하는 일들이 소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길수 있겠지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요. 힘으로만 하려는 신참에게 어르신 대하는법, 배식방법, 무거운 식판 들는 요령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며 각자가 맡은 그날의 일들을 눈웃음 지으며 묵묵히 하는 팀원들과의 3시간은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답니다. 길상사 담장에 화사하게 핀 노오란 영춘화빛 맑고 향기롭게 앞치마를 두르고 한 끼의 점심

식사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내는 자리에 함께 할수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 얻어가며, 오늘 하루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화라도 드려야겠습니다.

**12일 김윤자** - 자연이든 사람이든 관계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사람간에 관계는 늘 밀착되어 있어 옳고 그르고, 좋고 싫음이 금방 나타나곤한다. 그러나 거기에 꼭 들어맞는 답이란 결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노인센터의 봉사도 역시 그 범주에 속한다. 12일 우리 맑고는 식판전달과 배식을 맡았다. 그날 따라 꽃놀이를 가셨는지 다른팀들 봉사자 수가 평소보다 줄었다. 때문에 모자란 인원으로 손을 바쁘게 놀려야했다. 반찬이 양배추찜과 돼지고기계란장조림이었는데 양배추찜에는 씹장을 떠올려야하고 장조림은 고기와 계란을 적절하게 배분해야하므로 어려움이 따랐다.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빨리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서로간을 배려하는 호홉이 잘 맞아 집중하느라 시간도 잊고있을때였다. “한 번에 많이씩 주어야지 그렇게 여러번 주니 느리지!” 한 어르신이 냅다 소리를 지르시는 것

이었다. 다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김치 추가배식에서였다. 오신지 얼마 안되는 회원이신데 얼마나 놀랐을까? 씹으시기 좋게 가위로 김치를 자르면서 드리느라 애를 쓰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배식은 은근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2300여분의 각자에게 적절한 양을 맞추는 일은, 넉넉히 드리면 끝에 분들쯤에 가서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각자 드시다가 남으면 음식쓰레기가 되니 곧바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로 연결된다. 좀 적게 드려 그날 만든 찬이 남는다면 역시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좀 더 넉넉히 드릴 걸 하는 아쉬움도 남곤한다. 그래서 적절하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 중에 밥과 김치는 좀 더 드시고 싶은 분을 위하여 추가로 받아가시는 줄을 따로 서게 되어 있다. 헌데 그 줄이 짧지는 않다. 그러자니 배가 고프신 어르신은 이중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자니 그러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말씀하시는 발음도 안좋다보니 더 달라시는데 덜어내는 경우도 있고 덜어내라는데 더 드리는 경우도 즉 '덜'과 '더'의 오해가 발생해 또 버럭 화를 내시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배식하는

봉자와 받아드시는 어르신들과의 관계는 이렇다. 량도 맞춰야하고, 속도도 맞춰야하고, 말쑥도 잘 알아들어야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애로가 있다. 그래도 그날 추가배식이 처음이었다는 회원은 바로 웃는 얼굴로 돌아오셨다. 이 봄날에 피어난 꽃이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서 배운 실천을 통해서 영글어간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이 날처럼 무심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디 인들 공부가 안되겠는가? 배식이 마무리된후 복지사님이 봉사자들에게 고맙다며 음료와 과자를 내으셨다. “봉사자가 부족해 걱정했는데 잘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파이팅!

**26일 권미자** - 지난 한달동안 노인센터팀에 새로 오신 봉사자가 네 분이나 계셨습니다. 처음 봉사를 해보시는 분 들께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네 분 모두 늘 해오시던 분들처럼 손과 마음을 맞춰 열심히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맑고 향기롭게가 널리 알려지면서 직접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먼저 봉사에 참여한 회원으로서 모든 일에 더



~~~~~

충실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해봅니다.

서울시립요양원(1,2,3주 목요일)

(소감 : 오은주 모듬장)

8일 : 아직 내부가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지않아 음악치료용 물품이 제자리에 비치지 되지 않았는데, 왕종선 할아버지께서 북을 찾아주셔서 흥을 돋울 수 있었다.

15일 : 중랑구 구립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몇 분이 시설로 옮겨오셨다. 새로오신 분들이 음악치료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래를 너무 잘 하시자,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더 열심히 참여하셨다. 새로오신 어느 할머니께서, 오래전 맑고 향기롭게 창립법회 때 법정스님을 뵈셨다고 하며, 맑고 향기롭게에서 왔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워 하시며, 찬불가를 멋드러지게 불러주셨다. 시설이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어르신들의 참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승가원(1,3주 일요일)

(담당 : 홍정근 간사)

신종플루로 인해 별님실에서의 놀이활

동이 중단된 후, 시설측에서 요가만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어렵게 미술놀이활동 봉사자를 모집했던 것이 아쉽게 물거품이 되어 섭섭하다. 놀이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어머니를 참여시켜 음식 만들어주는 자원활동을 검토하여 실행하면 꽤 괜찮을 것 같다.

결식아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금요일)

(소감 : 최두리 모듬장)

1,2일 - 영춘화가 담 너머로 노오란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영춘화라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저기 꽃들을 찾아 가려는지 봉사자들의 마음이 조급한것같다. 계란을 많이 삶아야 하기에 집에서보다 3배의 시간이 걸린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봉사자께서는 앞에 와서 빨리 계란을 달라고 하신다. 목, 금 하루만이라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8일 - 김치가 금치로 바뀌는 순간이다. 지난달 배추가격에 “아~악!” 소리를 냈는데 이번 달은 그 소리조차 나지않는다. 배추가 한달 새 2배로 꺾충 뛰었기 때문이다. 고민을 안할 수



서울모임

4월10일,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 장학증서 수여식이 4월 10(토) 오후 1시 길상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23명 광주2명 순천1명 경남 1명 강원도 1명 총 28명과 학비 보조금 1명에게 수업료 및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5월 15일(토). 문경 온달산

박희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착순 42명(초과자는 대기자)
〈참가비 송금 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사)맑고 향기롭게
〈회비〉 회원(직계가족포함) - 20,000원 / 비회원 -25,000원
- 참가신청 후 3일 이내 입금시 참가 확정.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불참시 행사 2일전까지 1회에 한해 다음달로만 이월 가능 / 접수시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 필요
- 불참시 환불 규칙
• 행사 4일전: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본인 부담: 국민은행 외 600원)
• 2일전: 참가비의 50% 환불
• 1일전~당일불참: 참가비 숲기행 진행비로 적립(환불 안되며 다음달 이월도 불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힘들 때 결식이 옷대상자들은 더 힘들다. 이럴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국장님, 생각이 역시 깊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배추가 좋아 넉넉하게 김치를 나눠줄 수 있었다.

15,16,22,23일 - 지금도 길상사 어디를 걸어다니실 것만 같은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군데군데 스님의 체취만 남아있는 것 같다. 벌써 법정스님의 49재 회향이 다가온다. 우리 조리장에서도 결식이웃들에게 뭔가 푸짐하게 한 번 하자는 의미에서 잡채를 시도하기로 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터라 공부가 필요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개인 블로그도 찾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빠른 시간에 넉넉한 양이 준비 되었다.

(총 341가구, 단체1곳)

- 1째주 - 계란, 돼지고기장조림
- 2째주 - 김치
- 3째주 - 우엉, 연근조림, 농협상품권
- 4째주 - 잡채, 깻잎 장아찌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02)741-4696~7 / 담당: 홍정근 팀장

<2010년의 숲기행 주제 및 일정>

- 주제: 경상북도의 숲을 찾아서
- 일정: 5월 15일 - 문경 운달산 숲길과 김룡사 / 6월 19일 - 봉화 청량산도립공원 / 7월 17일 - 문경새재옛길 / 8월 21일 - 치산계곡(산자락 계단식 농경지 사이길과 계곡) / 9월 18일 - 죽령옛길(소백산 자락길 2구간의 일부) / 10월 16일 - 죽계계곡~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소백산 자락길 1구간의 일부)

초파일, 맑고향기롭게 한마당

초파일, 본 모임의 여러 활동을 소개하는 사진전과 친환경 체험마당, 벼룩시장을 길상사 트랙에 개설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이 행사는, 길상사를 찾는 많은 이웃들에게 본모임 각 봉사팀이 활동하는 모습을 알리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으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길상사에서는 단주만들기 코너를 운영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회원만남

5월 26일(수) 오후 2시. 소강당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노

력으로 매월 회원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현스님의 감로수와 같은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이 우리들 일상으로 스며들어 참된 삶이 일구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식후원

3/1 ~ 3/31 후원금 14,008,240원
이해원 - 백미 160kg

친환경농산물 및

생활용품 인터넷 구매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손쉽게! 도심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불교생협과 연대하여 판매되던 친환경농산물 및 생활용품을 이제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구매: <http://clean94.donong.kr>
또는 clean94.or.kr

5월의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모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5월 2일, 6월 6일) /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결식아동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

주 목, 금요일(5월 6일, 7일, 13일, 14일, 20일, 27일, 28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21일은 초파일로 20일만 활동함)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5월 9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6, 13, 20일(1, 2, 3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매주 화요일까지 참가 신청 요망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3, 10, 17, 24, 31일(매주 월요일)과 5월 5일(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 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들기 실시 / 오후 1시~3시 / 길상사 바느질방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5월 5일(수)→5월 6일로 변경됨)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 / 오후2시 30분 / 길상사 바느질방 / 선착순 10명 마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5월 10일(월)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1시 / 사무실
- 각 봉사팀 모듬장 회의 / 5월 25일(화) / 매

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길상사 - 맑고향기롭게 선수련회
신참반 : 5월15-16일(셋째주) / 토요일 오후3시~일요일 오후 4시까지 / 수건과 세면도구, 양말준비(* 구참반 선수련회는 초파일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회원만남의 날 / 5월 26일(수) / 오후 2시 / 소강당

**일반사업후원 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5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일자: 5/12/19/26일 (매주 수요일)
시간: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일자: 12/19/26일 (매주 수요일)
시간: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활동
일자: 6/13/20/27일 (매주 목요일)
시간: 10:00~13:00
- 노인건강센터 어르신 목욕활동
일자: 6/20일 (1,3주 목요일)
시간: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활동
일자: 13/27일 (2,4주 목요일)
시간: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 준비 및 배식, 설거지

일자: 6/13/20/27일 (매주 목요일)

시간: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일자: 7/14/28일 (매주 금요일)

시간: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및 장애인 이 동목욕

일자: 7/14/28일 (매주 금요일)

시간: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목욕활동

일자: 7/14/28일 (1~4주 금요일)

시간: 09:30~12:00

- 4일(화) 이미용활동 (매달 첫 번째 화요일)
- 11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8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8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2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 28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15일(토) 경남 창원시청 광장. 봉축법요식 후 제등행렬 동참예정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매월 셋째 수요일 (5/19)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4시 (5/18)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4시 (5/1, 8, 15, 22, 29) 창원 사파복지회관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 (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 (5/6)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외 9가구)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5/13, 27)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5/7, 14, 28)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 (5/26) 사무국
- 맑고항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사무국 가입신청 ☎(055)266-0170

경남 모임(055-266-0170)

5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연등축제' 단주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5월

대구 모임(053-753-8883)

5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사진 및 낙동강 사진 전시 - 5월



15일(토) 두류야구장 연등축제 행사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자연문화유적 탐방을 5월 2일 떠납니다 / 아침 8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출발합니다 / 동참비: 1만 5천원 / 준비물: 등산복장, 점심도시락, 간식
-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가 본회 사무실 2층 법당에서 11시에 있습니다. 법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울러 초파일 연등도 접수중입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밑반찬지원 / 매주 수요일(5일, 12일, 19일, 26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7시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둘째 토요일 8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18일(화) 대구은행 본점 9시 출발 / 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등
- 황금복지관 /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매월 첫째 화요일(4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 8일 오후 3시
- 운영위원회 회의 / 첫째 금요일(7일) 본회 차담실

여기는 길상사

<부처님 오신 날>

5월 21일(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길상사에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법회를 합니다. 주지스님의 법문과 길상사에서 마련한 행사들을 통해 우리들이 참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환히 밝힐 연등을 현재 접수중입니다. 길상사에서는 연등에 따로 가격을 매기지 않으므로 등을 밝히고, 마음도 밝힐 불자님들이 성의껏 동참하시면 됩니다.

<‘자비의 주머니’ 접수>

매년 성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준비하는 초파일 ‘자비의 주머니’는 5월 15일까지 받습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1만원 상당의 생필품(비누, 양말, 식용유, 김 등)을 주시거나 성금으로 내시면 부처님 오신 날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안거 결제 및 90일 백중기도 입재>

‘결제일’은 어김없이 찾아와 느슨해진 우리를 경책해줍니다. 서늘한 죽비소리 같습니다. 결제일에는 진리를 향한

길을 함께 가는 불자들이 모여 주지스님께 법문을 청해 듣습니다. 이 날 90일 백중기도 함께 입재합니다.

- 5월 28일(금) 오전 10시 / 극락전

<토요법담 - 법구경>

토요법담에서 ‘법구경’을 함께 봅니다. 간결하고도 쉬운 계송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불법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응답도 함께 합니다.

- 매주 토요일 2시 / 설법전

<자원봉사자 모집>

1. 종무소 : 사진 보정 및 영상을 다룰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2. 도서관 : 도서관을 가꾸고, 이용자들이 책을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실한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3. 신행단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현회 - 후원(선열당) 봉사
합창단 - 찾집 봉사 및 음성 공양
문수회 - 도량 안내 및 안내실 봉사
지장회 - 법당청소 및 재 관련 봉사
관음회 - 초파일 연등 제작 및 수련회 봉사

<홈페이지 이용 안내>

멀리서라도 법문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법문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5월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첫째 주는 주지스님, 나머지 주는 정화스님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5월 8일(토) 8시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보현회 정기법회 / 매월 음력 초하루 / 5월 14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월 셋째 월요일 / 5월 17일
- 지장회 정기법회 / 매월 둘째 월요일 / 5월 10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월 넷째 화요일 / 5월 25일 오후 1시
- 영어로 만나는 불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도서관

이런 · 얘기 · 저런 · 얘기

직접 쓰신 글로 만나는 법정스님

언젠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이라는게 참 허망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 제 입장에서 듣거든, 또 말을 하다보면 어느새 삼천포로 빠지기 쉽구, 그래서 난 말 하는거 별루야, 하지만 글은 달라요, 글을 쓰노라면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 목소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난 200% 아니 그 이상도 책임지겠지만 말에 대해서는 책임 못져, (웃음)”

어느새 어른 스님 입적하신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혹시 스님이 오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무실 인터폰으로 “문수행~”하고 찾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님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입니다.

요즘 ‘법정스님의 어찌구 저찌구’하는 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결국은 스님 글을 이렇게 조렇게 짜집기한 것들입니다.

어찌 그리 재주들이 좋은지….

우리에게 스님이 200% 책임을 지신다는 스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읽을 것이지 다른 데에 시선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라면 더더욱 직접 쓰신 글을 통해서 스님을 뵈고, 가르침 마음에 새기시길 당부 드립니다. 